



## 바다와 인간의 숙명

- 이청준의 '이어도'를 읽고 -

정 현 진\*

'섬'이라는 단어에는 신비스러운 그 무엇이 있다. 섬의 자태는 무언가를 슬픔을 지나면서 아름다움을 간직한다. 섬은 우리에게 인고(忍苦)하는 성스런 어머니의 모습처럼 더할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의 상징으로도, 마치 슬픔의 생명을 잉태한 듯한 모습에서 한줄기 희망으로도 느껴진다.

섬이 신비스러움과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바다가 있기 때문이다. 바다는 섬에 의해서 본연적인 모태의 측면을 나타낸다. 섬은 바다가 있음으로써 고립되고, 그곳을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고립의 정서를 가져다준다. 동시에 그들의 정서 속에서 섬이 고달픈 현실에 대한 한가닥 작은 희망으로 남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바다' 때문이다. 섬은 바다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때론 절망하면서 희망을 추구한다. 즉 '섬'은 바다에 의해서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겠다.

이청준의 <이어도>는 바다의 참의미를 밑바탕에 두고 사람들의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말하며 사람들이 동일성을 추구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열고 있다. 여기서 이 작품을 통하여 바다와 인간의 삶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도>는 '이상(理想)의 이어도'이다.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어도를 꿈꾼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어도는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다. 이어도는 죽음의 섬이기도 하다. 현실을 탈피하려는 몸짓에 사람들은 저마

\* 국제대학 해운경영학과

다 이어도를 꿈꾸나 이어도를 본 사람은 이어도를 찾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존재를 쫓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죽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여하튼 이중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어도는 제주도 사람들의 현실이며 동시에 이상이다.

이어도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은 선우현 중위, 천남석 기자, 양주호 국장, 술집 '이어도'의 여인이다. 이들은 행동이나 이야기를 통하여 이어도 추리의 과정을 엮어간다. '선우현' 중위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파랑도의 실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직된 팀의 일원이다. 파랑도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어도의 또 다른 표현이다. 선우 중위는 현실적이고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다. 천남석의 실종을 통하여 '이어도'를 허구가 아닌 현실로 직시하게 된다. 양주호와 여인을 만남으로서 천남석의 이어도와 그의 과거, 이어도의 전설이 조금씩 밝혀지게 되는 과정에서 이어도의 묘한 마력을 느끼게 된다.

'천남석'은 선우현 중위가 포함된 파랑도 수색을 취재하기 위해 파견된 기자다. 그는 어렸을 적 어머니의 피할 수 없는 이어도의 숙명 앞에서 아버지의 실종과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기억을 간직한 인물이다. 갈망하는 이어도를 찾으려는 듯 그는 죽음으로써, 선우현에게 결정적인 의문을 남긴다.

'양주호 국장'은 선우현 중위가 천남석 기자의 사망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리기 위해 천기자가 근무하던 신문사에서 만난 그의 상사이다. 그는 선우 중위에게 천남석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거나 실종의 의미를 이야기 해준다. 이 같은 방법으로 선우현 중위의 이어도에 대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주고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어렵פות이 늘어놓음으로써 사건 해결에 접근하게 된다. 그는 천남석의 실종 원인을 자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어도의 실체를 제주도에서 살며 이어도의 사고(思考)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에서 찾기를 강요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준다. 열거된 내용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거나 재확인시켜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는 '권위적 시선'에서 우리는 양주호를 발견할 수 있다.

'술집 <이어도>의 여인'은 천남석의 동거녀이다. 천남석의 어미와 같이

애뜻한 슬픔에 사로잡힌 이어도의 숙명을 느낀다. 그녀는 천남석의 유년 시절의 기억을 그녀의 의식으로써 연결시켜 주기도 하며, 선우현 중위와의 동침에서 이어도와 연결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 인물들은 다른 시전에서 이야기나 행동으로 이어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을 바탕으로 알수 있는 것은 시점을 구분하는 측면을 능가하여 그들의 공통된 동기를 통해 '진정한 이어도'를 이야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현실과 허구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를 합당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동기'때문인 것이다.

이야기는 양주호, 천남석과 선우현 중위의 대화에 의해 전개된다. 천남석은 선우 중위에게 '자신의 이어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선우 중위에게 엉뚱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갑작스런 그의 실종을 통해 천남석의 정서에 깔려 있는 이어도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간다. 사고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들린 형식적인 신문사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양주호와의 만남에서 천남석이 이야기 하던 이어도에 대해 하나둘씩 의문을 풀기 시작한다.

천남석은 어릴 적 어머니의 구슬픈 이어도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소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는 이어도 노랫가락 속에서 아버지의 섬을 보았고, 아버지가 보았던 이어도를 어머니에게 들려줌으로써 아버지는 죽음의 이어도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로인해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어도로 떠나버린 '설움과 한(恨)의 이어도'를 가지고 여생을 살게 된다.

어머니의 이어도를 보면서 그는 '이어도'에 절망을 느끼게 되고 그 존재를 부인하려고 노력하지만 그의 운명은 아버지를 이어도에 빼앗겨 버린 어머니의 '이어도'를 스쳐, 여인을 붙잡고 있는 이어도와 만나게 한다. 그의 유년시절과 죽기 전까지의 모든 삶은 온통 이어도로 영겨져 있는 실타래와 같았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生)을 이어도와 함께 지내왔던 것은 바로 깊이 뿌리 박힌 그의 이어도 때문인 것이다.

천남석의 이어도는 자신의 어렸을 적, 아니 태고적부터 내재되어 있던 제주도인들의 정서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아버지의 정서이며 그의 어머니의 정서다. 양국장의 정서이기도 하며 여인의 정서이기도 한 이어도는 제

주도사람인 그에게도 이어져 ‘그 만의 이어도’를 가지는 것이다.

천남석은 “이어도는 허구이며, ‘죽음이 기다리는 바다’로 향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고, 사람들은 겁나지 않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 이어도를 추구하게 하며, 그 성은 현실의 생활에까지 간섭해 온다.”라고 선우현 중위에게 이어도를 부정하듯 말하지만 사실 그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그의 이어도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 역설적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는 “이어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 깊이 사랑해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그의 사랑은 파랑도의 수색에서 이어도를 찾지 못한 현실에 대항하여 그의 ‘무서운 절망’을 피해 그가 가진 이어도의 정서와 섬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어도를 빼앗기는 걸 막을 정도의 열정을 가진 것이었다.

한편으로 그가 죽음을 선택한 것은 그의 선택의 측면위에 더 큰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운명이다. 이어도의 정서에 바탕을 둔 그의 숙명인 것이다. 그의 죽음이라는 선택은 누구보다도 이어도를 사랑하는 그였던 것을 순간 깨달았기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죽음으로써 이어도를 지키는 목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어도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의 뜻도 담고 있다. 그는 이어도를 두려워했지만 이내 그것이 ‘숙명이자 구원’임을 절실히 느낀다. 삶의 종결은 이어도의 풀리지 않는 신비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이 사랑하면서도 떠나고 싶어했던 발악이었고, 동시에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이어도를 자신의 사랑으로 지켜냄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방법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최선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죽어서도 그의 이어도를 떠나지 못한다. 선우현 중위와 양주호는 그가 ‘자신의 이어도’를 찾아 떠났다는 것을 결론지었지만, 그는 그 섬을 떠나지 못했다. 그의 이어도는 바로 그의 삶이었으며 터전이었다. 그는 그 이어도에서 떠나려고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의 죽음도 이어도와의 이별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런 뜻을 보여주듯 여지껏 찾지 못한 그의 시체는 상처없는 모습으로 제주도에 되돌아왔다.

하지만 천남석과 연관된 이런 기이한 일은 이어도를 분명히 찾은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유년시절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그의 이

어도는 바로 자신의 삶이 담겨있던 섬'이었던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정서를 공유하는 그들에게 이어도는 허구의 측면만이 아닌 현실에서 그들의 운명과 같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어도는 허구가 현실로 나타나려는 노력은 '여인과 선우 중위와의 동침'에서도 드러난다. 천남석은 미리 자신의 죽음을 파악하고 선우현과 그녀와의 만남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그녀의 섬에서의 해방과 함께 선우현의 사실의 집착이나 욕망을 포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양주호가 동침을 유도한다. 이 방법은 이어도의 허구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다. 현실과의 융합을 통하여 이어도의 실체를 파악하려 한 것이다. 그와 그녀의 동침은 이어도의 간접적 체험이며, 이것을 통하여 선우현 중위에게 이어도를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도를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는 삶의 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원초적이고 체험적인 유대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꿰뚫어 보는 듯한 동침의 방법에서도 천남석의 여인은 자신의 운명은 섬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천남석에 의한 구속이나, 다른 사람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이어도'로부터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이어도에는 천남석의 죽음 선우현과의 동침으로도 떠날 수 없는 '숙명적인 이어도'인 것이다.

선우 중위의 이어도를 찾으려는 욕망을 쫓아내기위한 동침은 그를 어렵פות한 이어도의 간접 체험을 가져다주기는 하지만, 물 사람인 자신은 이어도에 대해 완벽한 이해를 하기에는 어렵다. 그가 이어도의 존재를 결론짓지 못한 이유는 섬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그들의 정서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섬에서 태어나 이어도를 공유했다면 그 역시 이어도의 숙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했을 것이다. 그는 역시 물 사람인 것이다. 즉, 이어도는 그것의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어도가 허구라 해도 그들에게 이어도는 삶의 희망이자 절망이며 숙명인 것이다. 이들에게 이어도는 멀리 떨어져 추구할 수 없는 이상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제주도라는 섬이었으며, 그들의 정서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한 것도 바다이다. 그의 시체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제주

도 사람들은 이어도가 그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결론지었거나, 이상의 존재로만 남겨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다가 있음으로써 이어도는 허구가 아닌 자신의 삶의 일부임을 느낀다. 바다야말로 이어도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였던 것이다.

〈이어도〉는 비유법, 은유법으로 대상을 신비화시키고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초월적 세계인 이어도를 추리하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어도의 존재에 대한 결론을 내릴수 있게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이어도의 전설을 신화적 차원에서의 동일성을 추구하려는 역설적인 어법을 선택하여 전설에서 끝내버릴 수 있는 이야기를 천남석의 죽음, 여인과 선우현의 동침으로써 현실과의 연결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어도는 이소설의 배경인 제주도의 고립된 환경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들의 염원에서 비롯된 이상이었다.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줄기 희망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이어도였다. 이어도가 파랑도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존재의 의심을 갖게 하는 그 모두는 바로 이어도가 체념의 섬이며 희망의 섬이라는 이중성을 동시에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어도는 제주도 사람에게 지배적인 정서이며 그들의 삶의 모두이며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희망이다. 그런 정서를 만들어 낸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다’이다. 그들은 ‘바다’를 통해서 고립된 감정을 느끼고, 실제적인 이어도를 만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제주도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인간이 향하는 가치를 바다에 의해서 찾을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느끼던 양수는 바다의 축소이다. ‘심청전’과 같이 ‘통과제의’를 거쳐 이상을 현실화하듯이, 〈이어도〉라는 작품과 ‘바다’에 의해 이어도의 열쇠를 풀어 이상을 현실로써 추구하려 한다. 즉, 우리의 삶은 바다와 항상 같이 공유하며, 이는 바다에 의해 인간의 삶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바다’를 통해서만이 사람들이 가지는 이어도의 궁극증을 완벽히 표현하는 이야기를 엮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청준의 이어도는 바다에 의해서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이청준의 해양 친화(海洋 親和)적인 문학사상이다.